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종신문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

전당, 전군, 전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펼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대로를 따라 질풍노도쳐 나아가는 역사적인 시기에 소집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전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온 나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봄원을 담아 비범한 정치실력과 거창한 혁명실전으로 주체혁명위업을 끝바른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키시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우리 공화국을 필승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더욱 위용떨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음을内外에 엄숙히 선언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한 역사의 이 시각 전체 회의참가자들은 다함없는 경모와 불타는 충정의 마음을 담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것은 우리 공화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국가로 공고발전시키고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세계만방에 펼치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는데서 역사적사변으로 된다.

또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가치들이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열화같은 흄모와 신뢰심의 표시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평도따라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려는 천만군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확고부동한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전체 회의 참가자들은 주체 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신 풀없는 감격파 기쁨을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명도를 한치의 드릴도 없이,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총직하게 밟들어갈 혁명적 열의로 가슴 불태웠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에 참석하시였다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촉화한 설계도따파 총성의 200일 전투의 총 투격전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가 6월 29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이번에 소집된 최고인민회의는 주체 혁명 위업 수행의 전환기의 요구에 맞게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빛내이며 우리 국가 정치체제를 더욱 꼽고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수행에로 모든 국가 활동을 지향시켜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졌다.

만수대 의사당 회의장장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킵상이 정중히 모셔져 있다.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부의장들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참가하였다.

당, 무역, 청원기판, 사회단체, 성, 중앙기판, 과학, 교육, 문학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이 회의에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김영남동지, 황병서동지, 박봉주동지, 최종래동지, 김기남동지, 리명수동지, 박영식동지, 양형설동지, 리수용동지, 김평해동지, 리안전동지, 오수용동지, 박범기동지, 김영철동지, 김원홍동지, 최부일동지, 로두철동지, 리용호동지, 임철웅동지, 김수길동지, 박태성동지, 김동오동지, 조연준동지, 리병철동지, 노광철동지와 김영태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성원들이 주석단에 자리 를 잡았다.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부의장들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최태복의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 의안을 결정하였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체헌법을 수정보충안에 대하여

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하는 대하여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를 구성함에 대하여

4.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국가경제 발전 5개년전략을 절저히 수행할데 대하여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내용에 대하여

6. 조직문제

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이 토의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원리를 수정보충함에 대한 보고를 양형설대의원이 하였다.

첫째 의정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원리 수정보충안을 승인함에 대하여》가 제4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회의에서는 블록 의정이 토의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열성을 김영남대의원이 하였다.

그는 전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널원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할 것을 최고인민회의에 정중히 제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실데 대한 제의는 전체 대의원들과 참가자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회의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지 높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였음을 엄숙히 선언하였다.

순간 폭풍같은 《안세!》의 환호성이 회의장을 진감하였다.

회의에서는 세째 의정이 토의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제의에 따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황병서대의원, 박봉주대의원, 최종래대의원,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김기남대의원, 박영식대의원, 리수용대의원, 리안전대의원, 김영철대의원, 김원홍대의원, 최부일대의원, 최기성대의원, 양승호대의원, 윤재현대의원, 김진국대의원, 강영철대의원, 최일룡대의원, 김경준대의원, 비방근대의원이 서면토론을 제기하였다.

토론자들은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아로새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맞게 경제강국 전설에 박차를 가하여 국가의 물질기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새로운 국가 경제발전 전략이 제시될 때 대하여 언급하였다.

회의에서는 넷째 의정이 토의되었다.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한 보고를 박봉주대의원이 하였다.

이어 김만수대의원, 리무영대의원, 김충길대의원, 비철만대의원, 김수길대의원이 토론하였으며 비충길대의원, 리영철대의원, 김기성대의원, 양승호대의원, 윤재현대의원, 김진국대의원, 강영철대의원, 최일룡대의원, 김경준대의원, 비방근대의원이 서면토론을 제기하였다.

토론자들은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아로새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맞게 경제강국 전설에 박차를 가하여 국가의 물질기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새로운 국가 경제발전 전략이 제시될 때 대하여 언급하였다.

3면으로 계속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제 5 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내옴에 대하여

민족최대의 속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조선로동당과 공화국 정부 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중대하고 절박한 사업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온 거래가 일일천주로 감망하는 조국통일의 역사적업무를 성취하기 위하여 내외반통일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단호히 짓부시며 조국통일운동을 즐기자게 전진시켜왔다.

조국통일은 민족지상의 애국워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김일성同志께서는 혁명생애의 전기간 철저한 민족지주성과 열렬한 민족애, 고결한 맥망으로

로 민족의 통일의지를 비상히 높여주시고 거족적 통일운동의 전성기를 펼쳐주시었으며 불멸의 통일대장을 마련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희고와 심혈을 바치시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고려민주권방화국장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조국통일 3대원장으로 정립하시고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비롯한 학철한 사상과 로선을 내놓으시며 민족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었으며 숭고한 통일에 국의지와 대용단으로 우리 민족끼리비리를 핵으로 하는

6. 15공통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 4선언을 세택발표하도록 하시여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셨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원생의 뜻과 유훈을 관찰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주적인 조국통일로선을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고 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同志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방략과

방도들을 천연적으로 밝힌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신것은 삼천리강도우에 존엄높고 명망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적기회를 열어놓은 역사적사변으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온 민족의 통일념원과 지향을 반영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한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과 조국통일로선을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고 계신다.

투쟁을 강력하게 조직전개해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내운다.

2.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을 없앤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결정을 실행하기 위한 실무적책을 세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평양

어느덧 8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주역은 주체의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밟히면 역사의 언덕으로 끌어내고 있다.

카르는 후보당식들이 광복되었고 천정에는 예전과의 남포동이 매달려있었다.

나무도 청법하고 소박한 이곳에서 우리 민족사에서 특히 활약한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전인비밀의 할로를 헤치시며 주체의 진리를 밝혀내고자 시대와 교조, 혼란과 좌절로 얼룩진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에서 풍자부를 찍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역사상 처음으로 주체의 가치, 선군의 가치를 높이 주체드시고 조선혁명의 영원한 뼈승의 진로를 밝혀주시면서 10대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은 오늘도 이 나라 천만군민의 가슴을 세차게 격동시키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참시하여 주체혁명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여론 단체의 사회혁명을 빛나는 승리에 이르기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였다.』

높은 사상에 의하여 저도되는 혁명 투쟁망이 실재와 우여곡절을 모르고 오직 광민을 승리의 한길로 만 천진할 수 있는 것은 역사의 정의이다.

일찌기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 시기

조선혁명의 영원한 진로를 밝혀준 역사적인 카">×

에 벌써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민족해방투쟁을 승리에 이끌려온 새로운 지도사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철학하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캄디온 혁명의 길, 출마론 투쟁의 진로를 찾지 못해 우리 민족은 얼마나 비행에 차이로 치러야 했던가.

개인데로와 청원도 하여보고 파업과 파업도 일으키면서 나라를 찾고 민족의 존엄을 찾고자 힘써 풀어풀 힘썼지만 가슴이쁜 실패만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조선인민이었다.

파란부지의 과거지사를 하나하나 넘으면서 조선혁명의 진로를 모색하시면서 조선혁명의 사색의 쪽과 깊이를 우리 어찌 다 해이킬수 있으랴.

천리비안의 예지와 비명한 통찰력으로 선형세대의 전략과 토선의 악점을 철학적으로 폐쇄어보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슴속에서는 굳은 신념이 배박되고 있었다.

선형세대의 운동자들은 한걸같이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며 혁명을 주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진리를 무시하고 있다. 수백만대중의 조직된 힘에 의거해야 일체를 태도를 할 수 있겠는데 우파 반민운동자들은 혁명도 독립전쟁도 특수한 역할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선사람들만 하는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귀국의 독립 56돐에 즈음하여 당선과 귀국인민에게 축전을 보낸다.

꽁고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김 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꽁고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김 영남

주제 105(2016)년 6월 27일 평양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특사일행

여러곳 참관

꾸바공산당

